


 숨은그림찾기 <93>


(찾아보세요) 송사리, 서를 쪽, 병따개, 열대어, 담배 파이프, 고추, 제비, 화살, 다리미

아내의 생일 케이크

남편이 아내의 생일 케이크를 사려고 제과점에 갔다. 제일 크고 화려한 케이크를 골라서 주인에게 부탁했다. “당신은 늙지도 않는구려, 더 건강해지는 것 같소”라고 써 주세요”

“아, 잠깐. 한 줄로 쓰지 마시고, 위에다 ‘당신은 늙지도 않는구려’라고 쓰고 밑에는 ‘더 건강해지는 것 같소’라고 써주세요”

잠시 후 파티가 시작됐고 케이크에 불을 붙일 시간이 있다. 상자에서 케이크를 꺼내는 순간,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과 아내는 기절초풍하고 말았다. 케이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당신은 늙지도 않는구려. 밑에는 더 건강해지는 것 같소”



지난주 정답

새집, 고추, 송사리, A자, 열대어, 사 لم 옆 얼굴, 블링핀, 양주잔, 바늘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체부

▲당첨자 : 하우빈(완도군 원도읍) 이현숙(광주시 북구 증흥동)

아하! 오늘 바로 그날



세계를 두드린 ‘난타’ 첫 공연

1997년 등장, 2007년 8월 말 기준 24개 국 205개 도시에서 9천831회 공연, 349만 9천381명 관람. 전용관 외국인 관람객 100만 명과, 한국 최초 에인버리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 전 공연 매진. 아시아 공연물 최초 뉴욕 브로드웨이에 전용관 마련 등, 끝이 없다.

한국의 대표적 문화 콘텐츠 난타(PMC 프로덕션)의 ‘성적표’는 화려하다.

지난 1997년 10월 10일 서울 효암아트홀에서 첫 공연을 시작한 난타가 오는 10일로 꼭 10주년을 맞는다. 그간 들어간 재료도 엄청나다. 10년 동안 사용한 오이(9만9천개)·양파(3만개)·양배추(5만개)·당근(9만9천개) 등 체소 무게만 200t이 넘는다. 도마는 매년 120개, 칼은 매년 1천100개가 쓰였다.

난타는 초연 당시부터 국내 최초의 논 베벌(Non Verbal·무언) 무지컬을 내건 퍼포먼스로 화제가 됐다. 초연 때는 공연장을 찾아 어리둥절해하는 관객들이 많았다. 음식점 주방을 무대로 대형의 요리사가 마구 두드려대는데, 말도 없다. 언어를 대신하는 것은 오직 도마와의

칼질, 냄비·프라이팬·쓰레기통·철가방 등 온갖 사물을 두드리는 리듬과 비트(Beat)뿐이다. 그런데, 신나고 재미있다. 폭발적 리듬을 듣다 보면 심장 고동이 터질 듯 뛴다.

기존 연극 공연장과는 분명히 달랐다. 파격적이었을까. 11월 2일까지 객석 접유율을 100% 넘기며 2만7천명을 동원했다. 한국 공연사상 최다 관객 동원이라는 신기록.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중인 ‘스톰프’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난타’가 전통의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한국적 색깔을 입힌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우뚝 서는 ‘신호탄’이었다.

1999년 8월 한국 최초로 영국 에인버리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해 전 공연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 2000년에는 국내 최초로 1년 내내 한 작품만을 공연하는 ‘난타’ 전용극장을 열었고 지난 2003년에는 한국 공연물 사상 최초 브로드웨이에서 ‘Cookin’이라는 제목으로 첫 공연.

2004년에는 아시아 창작공연으로는 최초로 전용관 마련하는 등 끊임없이 국내 공연사의 새 기록을 세웠다. /김지율기자 dok2000@

84. 세계 각국 디자인의 과거와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제적 행사가 5일 광주에서 개막돼 3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빛 LIGHT’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전 세계 디자이너들의 실험 정신을 담은 2천7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무엇일까요?

- ①광주 디자인비엔날레
- ②전주세계소리축제
- ③부산국제영화제
- ④대구 애니메이션 축제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문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0일(음 8월 30일 丁丑)

子 36년생 沈浦潤獎이 나타나니 내 것 준다는 마음으로 보내라. 48년생 남편이 고통에 처할 수 있다. 60년생 마지막 고생이 남아 있다. 72년생 계획은 있으나 훨씬 미루어진다. 84년생 빙 동서 잡고 눈물을 날 수 있으니 면밀하게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17, 31

丑 37년생 사랑방 이제부터니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라. 49년생 후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라. 61년생 부하의 협조로 무거운 짐을 덜어주니 고맙게 생각하라. 73년생 끝까듯 미루는 행운의 숫자: 01, 42

寅 38년생 속마음이 불안해지니 하루가 즐겁거나, 50년생 희망찬 아침이나 계획대로 추진하라. 62년생 새로운 문서와 뜻밖의 수입이 발생하니 주변을 살펴보라. 74년생 도와줄 사람이 못 본래해도 괴로워 하지마라. 행운의 숫자: 02, 41

卯 39년생 대고개 없으나 주변인은 곤욕. 51년생 순조롭게 진행하니 이웃과 신용을 쌓으라. 63년생 큰 부지기는 하지마라 손실이 있다. 75년생 좋은 여성을 만날 수다. 준비하고 나가라. 행운의 숫자: 23, 43

辰 40년생 지나운 세월을 다시 한번 점검하다. 52년생 현금 흐름을 철저하게 점검하라. 64년생 기류가 답답하다. 막월 곳을 살펴보라. 76년생 안도의 숨을 들리니 재운을 충분히 하라. 행운의 숫자: 11, 30

巳 41년생 고생은 없지만 그렇다고 기분 좋은 일은 있는 것은 아니다. 53년생 용법한 하루이나 苦惱은 있다. 65년생 손해를 보고 이 생기니 현명하게 처리하라. 77년생 돈거래는 삼가 하라. 행운의 숫자: 20, 34

午 42년생 하늘 한판 우리려 보라 부끄럼이 없는지를 살펴보라. 54년생 할 일이 많으니 아침부터 서둘러라. 66년생 길가에 계속되나 손아래 사람은 고통이 있다. 78년생 계획을 세우고 조용히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12, 32

未 43년생 친가 처가 양쪽에 부모님을 살펴보라. 어른이 안 보인다. 55년생 자녀로 불편하니 대안을 준비하라. 67년생 문서는 꼼꼼히 서명은 전천히 살펴서 확인하라. 79년생 재물도 불안하고 妻苦가 걱정된다. 행운의 숫자: 22, 35

申 44년생 개운치가 않으니 좌족을 살펴보라. 56년생 부부 일전이 예상되니 조심하며 보내라. 68년생 遊興數에 속이 타니 조신해야 하리로다. 80년생 형제간의 말썽이 생길 수도 있으니 삼시일 언행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21, 28

酉 45년생 부부의 주변에서 소쟁이 일어나니 나누면 경직 없다. 57년생 나누면 배가 되니 모든 일은 즐겁다. 69년생 뜻밖의 인연은 오래하지 못한다. 81년생 육심은 내지 말고 차분하게 돌아보며 살피로 정리하라. 행운의 숫자: 18, 44

戌 46년생 생활이 바빠지니 부부간의 사랑으로 意氣投合 쌓아보라. 58년생 大吉은 없지만 큰 득도 있다. 70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니 용서하며 살아라. 82년생 옛 것으로 말썽 나니 대비하며 지내라. 행운의 숫자: 14, 16

亥 47년생 주변을 살펴보라 난제가 보인다. 59년생 가정의 불화와 부부간의 언쟁은 서로가 책임이다. 71년생 모든 일은 길사로 연결되며 이사 수도 생기나 즐거운 일이다. 83년생 힘차게 전진해 도 무리 없이 뛰겠다는 행운의 숫자: 24, 43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008>

Do you like the Olympics?
당신은 올림픽 경기를 좋아합니까?

A : Do you like the Olympics?
B : Yes, especially the winter games.
A : What's your favorite Olympic event?
B : I like figure skating the best.
A : Oh, that's interesting.
B : Do you like the Olympics?
A : Yes, I do. But I like the summer games better.

A : 올림픽 좋아하세요?
B : 예, 특히 동계대회를 좋아합니다.
A : 좋아하는 올림픽 종목은 무엇입니까?
B : 저는 피겨스케이팅을 가장 좋아합니다.
A : 아!! 그거 흥미로운 경기지요.
B : 당신도 올림픽을 좋아하세요?
A : 예, 하지만 저는 하계 경기를 더 좋아해요.

* I prefer the Olympics to the World Cup.
=월드컵보다 올림픽을 더 좋아합니다.

오하요우 니혼고 <1008>

あそんでないで, 手伝(てつだ)って。
늘지만 말고 도와주렴.

A : ケンちゃん, あそんでないで, 手伝(てつだ)って。
B : 週末(しゅうまつ)ぐらいいやすんでも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 今日(きょう)は何もしたくないです。
A : はい、はい。じゃ, ご飯(はん)も食(た)べないよね。

A : ケン, 놀지말고 도와주렴.
B : 주말 정도는 쉬어도 되잖아요. 오늘은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A : 네~네~ 그려세요. 그럼, 밥도 안 먹을 거지.

手伝(てつだ)う: 남을 도와서 일하다
~したくな: ~하고 싶지 않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쟁구워 <198>

能不能快点儿?
좀 빨리 안 될까?

A: 我们那批货, 什么时候能查验放行?
Wǒmen nà pǐhuò shénme shíhou néng chéyán fàngxíng?
위민 나 퍼후, 산내 스허우 네 차 엔 방 성?

B: 可能要等几天。
Kěnéng yào dèng jǐ tiān.
개 능 어도 몇 치 닌.

A: 照顾一下嘛, 能不能快点儿? 我们是老朋友。
Zhāogù yíxiá ma, néng bù néng kuǎi déri? wǒmen shì lǎo péngyou
자오 구 이 쌔야 마, 네 뿐 누 쿠아야 디영? 웨먼 시 라오 펑유.

B: 抱歉, 再等等吧。
Bùqǐn, zài dèngdèng ba.
�습니다, 치엔, 티이 정 정 베.

A: 你們 물건, 具體 問 事項에 檢查 허가를 能够 뱉을 수 있음까?
B: 아하도 머칠 기다려야 될 거야.
A: 잘 죽 죄 쥐, 좀 빨리 안 될까? 우리는 오현 천구잖아.
B: 미안해. 좀 더 기다리겠.

貨 {huò} 물건

查驗 {cháyán} 검사하다

放行 {fàngxíng} 통행을 허가하다

한자 이야기 <625>

세군(細君)
가늘 세, 임금 군

세군(細君)은 본래 전한(前漢) 무제(武帝) 때, 흉노(匈奴)를 견제하기 위해 오손국(烏孫國)의 왕에게 무제의 공주로 위장하여 대신 시집간 강도왕 유경의 딸이다. 따라서 ‘제후의 부인’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으나, 동방삭이 다음처럼 장난스럽게 자기의 아내를 일컬으면서 ‘아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한나라에서는 복날이 되면 관리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주는 관례가 있다. 그 날도 관리들은 무제가 하사한 고기를 나누어 줄 담당관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저녁때가 되도록 오지 않았다. 그러자 동방삭은 기다리다 못해 칼로 고기를 베어 가지고 가면서 “하사품은 잘 받아야겠다”고 고기를 빼어 넣어버렸다.

이 사실을 들은 무제는 동방삭을 불러 무례함을 꾸짖고 직접 자기를 비판하도록 하였다. 동방삭은 두 번 질하고 말하길, “삭이여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후로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는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로 확정되었다. 이 사실은 무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를 받아갔으나 아주 무례하구나! 칼로 고기를 베어 고기를 자르다니 정말 용감하구나! 고기를 자르되 많이 갖지 않았으나 참으로 깨끗하구나! 집에 가지고 가서 세군(細君)에게 주니 인정이 넘치는구나!”라고 하였다. 동방삭의 재치에 무제도 용서하고 말았다고 한다.